N.E.W. SEMINARY 설교 자료

요나의 기도와 보혈의 능력

Hoon Kim 목사, 2026년 10월 18일, 요나 1:17-2:10

본문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를 통해 고난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며 옛 자아를 벗고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특권과 은혜를 가르친다.

가르침: Hoon Kim 목사, N.E.W. Church. 설교는 목사님이 전하신 원문과 육성 그대로이며, 목회자 자료는 AI의 도움을 받아 영어에서 번역했습니다. 전체 검토에 앞서 2026년 11월 11일에 먼저 나눕니다.

무료로 듣고, 내려받고, 나눌 수 있습니다: newexodusseminary.org/ko/2026-10-19-new-jonah-1-the-prayer-in-the-belly-of/

한눈에 보기 · 가르침 노트 · 성경 본문 가이드 · 단어 연구 · 지명과 연대표 · 가르침 개요 · 학습 가이드 · 기도 · 복습 문제 · 3분 요약 · 한 주간 메시지

시각 자료

- 시각 자료 1: 요나의 기도와 보혈의 능력
- 시각 자료 2: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시다
- 시각 자료 3: 삼 일 밤낮
- 시각 자료 4: 그의 하나님께 드린 기도

한눈에 보기

한눈에 보기: 물고기 뱃속의 기도

- **제목 (한국어):** 요나의 기도와 보혈의 능력
- **제목 (영어):** The Prayer in the Belly of the Fish (제안: 여백의 시: 은혜의 자궁 속 기도)
- **날짜:** 2026년 10월 19일
- **본문:** 요나 1:17–2:10
- **설교자:** 김훈 목사 (N.E.W. Church)

핵심 진리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난의 시공간을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우리의 존재 자체에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귀한 특권을 발견하는 자궁으로서 주권적으로 예비하십니다.

요약

요나 1:17–2:10에서 요나는 큰 물고기의 깊은 처소에서 시적인 기도를 드리며, 김용택 시인이 표현한 “여백의 미학”, 곧 말해지지 않은 실재가 눈에 보이는 글자보다 더 많은 말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구조용 선박으로서가 아니라,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과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처럼 삼 일 밤낮 동안 옛 자아가 상징적인 죽음을 통과하는 재탄생의 자궁으로서 물고기를 주권적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의식주의적 조작이 아닌 인격적인 관계(“그의 하나님 여호와”)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언약적 특권을 모범적으로 보여 줍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갓난아이의 옹알이처럼 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들으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에 가장 먼저 응답하십니다.

주요 흐름

1. **여백의 시, 물고기 뱃속의 기도** (구약 예언시의 미학과 요나 기도의 깊은 여백에 대한 도입)
2.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환경** (폭풍 속에서 만남의 자궁으로 물고기를 주권적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3. **자아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삼 일 밤낮** (출애굽기, 아브라함, 요나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와 영적 죽음의 성경적 패턴)
4. **관계에 기초한 부르짖음과 응답의 확신** (말보다 우리의 존재에 먼저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나의 하나님"을 부름)

가르침 노트

강의 노트: 물고기 뱃속의 기도

역사적 배경

- **예술로서의 예언서 문학:** 요나서는 거룩한 성경인 동시에 정교한 히브리 문학 작품입니다. 극적 반어, 구조적 대칭, 시적 기도를 활용하여 영적 실재를 드러냅니다.
- **모범적인 이스라엘인의 기도:**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는 거의 시편의 구절들(예: 시 18, 30, 42, 116, 120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 가운데서도 기도의

정경적, 예배적 언어를 알고 있으며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언약의 특권을 활용하는 모범적인 이스라엘인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요나 2:1–9].

장소와 지리

- **모리아산 / 시온산:**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아브라함의 사흘 길 여정(창 22장)을 언급합니다. 김훈 목사는 모리아산을 예루살렘의 시온산과 연결하며, 이삭을 바침으로써 자기 뜻을 내려놓은 장소로 강조합니다.
- **시내산 / 광야:**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광야 여정(출 19장)은 이스라엘이 종의 신분을 벗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segullah*)이라는 정체성의 계시를 받는 시험의 장으로 제시됩니다.
- **바다 한가운데 / 스올:** 요나가 던져진 지리적 심연은 깊은 곳, 산의 뿌리, 그리고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죽음의 영역인 스올을 나타냅니다 [요나 2:2–6].

원어 통찰

-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 지정하셨다 (*Manah* - מָנָה):** 요나 1:17에서 (그리고 이후 요나 4:6, 7, 8에서) 하나님은 특정한 대상을 "준비"하시거나 "지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로서 폭풍, 물고기, 박넝쿨, 벌레를 명하여 당신의 종들을 인도하십니다.
- **남성형 물고기에서 여성형 물고기로 (*Dag* / *Dagah* - דָּג / דָּגָה):** 요나 1:17a에서 물고기는 남성형(*dag gadol*)이지만, 요나 1:17b / 2:1에서는 여성형(*dagah*)으로 나타납니다. 김훈 목사는 주석의 통찰을 인용하여, 이 변화가 내장/뱃속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me'im* / מְעִים)와 어우러져 자궁(*rechem*)의 기능을 암시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물고기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잉태와 새로운 탄생을 위한 환경이 됩니다.
- **보배로운 백성 (*Segullah* - סְגֻלָּה):** 출애굽기 19:5에 사용되었습니다. 사흘 길의 광야 경험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계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그의 하나님 여호와 (*Yahweh Elohayw* - יְהוָה אֱלֹהָיו):** 요나 2:1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참된 기도는 막연한 유신론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관계 위에 서 있습니다.

영적 진리와 적용

- **여백의 미학:** 김용택 시인의 시 〈달〉을 인용하며, 김 목사는 말해지지 않은 배경, 곧 두 연인 사이의 관계적 유대가 단순한 말에 힘을 불어넣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나의 기도에서 말해지지 않은 배경은 요나의 절박한 부르짖음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 **준비된 처소로서의 물고기 뱃속:** 고난과 파선과 깊은 바다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망치기를 멈추고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특별한 환경(기도원, 새벽기도, 위기의 순간)을 예비하십니다.
- **영적 죽음의 "삼 일 밤낮" 원리:**
- 진정한 변화는 자아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 종에서 자녀로 변화되는 이스라엘의 여정에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 가장 소중한 약속인 이삭을 내려놓는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
-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나타납니다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2장).
- 물고기 뱃속은 우리의 교만과 완고한 고집과 옛 본성이 죽음을 통과하듯 벗겨져 나가 새롭게 태어나는 곳입니다.
- **관계에 기초한 기도의 기본 요건:**
- 기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세상이나 이방인의 간구와 구별됩니다.
- 무신론자의 허무함은 경외감과 깊은 감동을 경험하면서도 감사할 대상이나 인격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 요나에게는 부를 대상이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 **우리의 옹알이가 아닌 존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 갓난아이의 서툰 옹알이를 알아듣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서투르거나 온전치 못한 간구를 넘어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과 참된 필요를 돌보십니다.
- 하나님의 응답은 단지 입술로 내뱉은 말에 대한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경 본문 가이드

성경 본문 안내: 물고기 뱃속의 기도

성경 구절 사용표

구절	사용 방식	위치	김 목사의 적용 내용	신뢰도
요나 1:17	읽고 강해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환경, 자아의 죽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주권적으로 예비하셨다(*manah*). 물고기의 문법적 형태가 변하며	높음

구절	사용 방식	위치	김 목사의 적용 내용	신뢰도
			자궁을 암시하고, 삼 일 밤낮은 변화를 상징한다.	
요나 2:1	읽고 강해함	관계와 확신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기도는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언약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된다.	높음
요나 2:2	읽고 강해함	관계와 확신	고난 가운데 요나는 스올에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고난은 우리의 존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찾도록 정해진 시간이다.	높음
요나 2:3–9	낭독함	여백의 시	설교 본문 교독 중에 낭독됨. 고난과 구원에 관한 시편과 같은 시적 언어를 제시한다.	높음
요나 2:10	읽고 언급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환경, 자아의 죽음	물고기가 요나를 땅으로 토해 냈다. 옛 자아가 죽은 뒤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오는 모습을 묘사한다.	높음
요나 4:6–8	언급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환경	4장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해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햇볕을 동일하게 "준비"하신다.	높음
마태복음 12:39–40 ("복음서"를 통해 언급됨)	언급함	자아의 죽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삼 일 밤낮인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다.	높음
출애굽기 3:18 / 5:3 / 8:27	언급함	자아의 죽음	모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광야로 사흘 길을 가게 해 달라고 바로에게 요구했다.	높음
출애굽기 19:5–6	언급함	자아의 죽음	광야 여정 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segullah*)이라고 부르신다.	높음
창세기 22:1–14	언급함	자아의 죽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사흘 길을 걸어갔으며,	높음

구절	사용 방식	위치	김 목사의 적용 내용	신뢰도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옛 자아가 죽는 것을 나타낸다.	
욥기	언급함	관계와 확신	하나님은 당신의 신적 목적을 증거하고 드러내시기 위해 욥의 삶에 고난이 지속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높음

예배의 다른 순서

구절	사용 방식	위치	김 목사 / 예배 인도자의 적용 내용	신뢰도
시편 103:1–14	교독문으로 낭독함	설교 전 예배 순서	하나님의 모든 은택, 긍휼, 그리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을 찬양하는 교독문 45번.	높음
히브리서 4:16 / 10:19–22	언급함	성찬 기도 및 대표 기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감. 휘장을 찢으시고 살아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높음
고린도전서 15:12–28	목록 카드에 기재됨	목록 참조 구절	목록 카드에 이 구절이 기재되어 있으나 설교 녹취록에서는 읽히거나 직접 인용되지 않음(예정된 구절이거나 부활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낮음 (원문 출처에 없음)

문맥과 적용

성경적 및 역사적 배경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치하(열왕기하 14:25)에서 활동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니느웨를 향해 예언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 도망치던 중, 지중해의 맹렬한 폭풍 속에서 이방인 선원들에 의해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요나 1:17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요나 1:17은 요나 2:1로 지정되어 있어, 물고기 뱃속이 이어지는 시의 명시적인 배경이 됩니다. 2장의 시편과 같은 기도는 정경의 탄식시와 감사시를 깊이 차용하고 있으며, 기원전 8세기 선지자가 극심한 징계와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이스라엘의 예배 언어 틀 안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김 목사의 본문 적용 방식

김 목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낸 삼 일을 더 넓은 성경신학에 연결합니다:

1. **예비하심의 주권:** 하나님께서 물고기, 박넝쿨, 벌레, 바람을 준비하셨듯이(*manah*), 우리 삶의 특정한 위기와 환경을 주권적으로 조성하십니다.
2. **"삼 일 밤낮"의 모티프:** 이 기간은 단순한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변화의 문턱으로 다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segullah*)임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아간 여정(출애굽기 19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사흘 길을 걸어간 여정(창세기 22장),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삼 일을 보내신 사건(마태복음 12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재탄생의 자궁:** 물고기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성별 형태의 변화에 착안하여, 김 목사는 물고기 뱃속(*me'eh*)을 부활한 사역자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옛 정체성이 벗겨지는 자궁으로 제시합니다.
4. **언약적 기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Yahweh Elohayw*)를 향한 요나의 부르짖음은 참된 기도가 언약 관계에 기초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아기의 옹알이를 알아듣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말을 해석하시며 우리의 존재 자체에 응답하십니다.

검토 사항

- **고린도전서 15:12–28:** 목록 카드에 참조 구절로 고린도전서 15:12–28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본문은 설교 본문에서 낭독되거나 직접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성찬 관련 본문인지 인접한 예배 순서를 위한 것인지.
- **홍해에서 시내산까지의 연대학:** 김 목사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삼 일 밤낮을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라고 언급합니다.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로 사흘 길을 들어가 마라에 이르렀으며(출애굽기 15:22–23), 시내산에는 셋째 달에 도착했습니다(출애굽기 19:1). 사흘 길의 광야 여정과 시내산 도착이 함께 묶여 언급되었음을.

단어 연구

단어 연구: 물고기 뱃속의 기도

1. 준비하셨다 / 예비하셨다 (Prepared / Provided)

- **설교 중 언급된 표현:** 준비하셨다
- **음역:** *manah*
- **원어 표기:** מָנָה

- **설교에서 전한 의미:** 주권적으로 지정하시고, 맡기시거나, 미리 준비하심. 하나님께서는 위기가 닥치기 전에 이미 아시고 징계와 구원의 도구를 미리 배치해 두십니다(요나 1:17의 큰 물고기, 요나 4:6-8의 박넝쿨, 벌레, 동풍, 햇볕에서 나타남).
- **성경 구절:** 요나 1:17 (또한 요나 4:6, 7, 8)
- **해당 단락 제목:**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환경

2. 물고기 (남성형에서 여성형으로의 전환) (Fish [Masculine to Feminine shift])

- **설교 중 언급된 표현:** 남성 물고기에서 여성 물고기
- **음역:** *dag* (남성형) / *dagah* (여성형)
- **원어 표기:** דָּגָה / דָּג
- **설교에서 전한 의미:** 요나 1:17에서 물고기는 처음에 남성형(*dag*)으로 등장하지만, 요나 2:1에서는 여성형(*dagah*)으로 바뀝니다. 김 목사님은 이 물고기가 요나를 안전하게 품고, 징계하며, 새로운 소명 가운데로 다시 낳기 위한 어머니의 자궁(뱃속, *me'eh*)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해석적 전통을 강조합니다.
- **성경 구절:** 요나 1:17–2:1
- **해당 단락 제목:**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환경

3. 보배로운 백성 (Treasured Possession)

- **설교 중 언급된 표현:** 세굴라
- **음역:** *segullah*
- **원어 표기:** סְגֻלָּה
- **설교에서 전한 의미:** 특별한 보물, 소중한 개인 소유, 또는 아끼시는 언약 백성. 김 목사님은 이스라엘이 사흘간의 광야 여정을 통해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린 후 시내산에서 부여받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 단어를 강조합니다.
- **성경 구절:** 출애굽기 19:5
- **해당 단락 제목:** 자아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삼 일 밤낮

4. 그의 하나님 / 나의 하나님 (His God / My God)

- **설교 중 언급된 표현:** 그의 하나님 / 나의 하나님
- **음역:** *Yahweh Elohayw* / *Yahweh Elohay*
- **원어 표기:** יְהוָה אֱלֹהָיו / יְהוָה אֱלֹהָי
- **설교에서 전한 의미:**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언약의 이름. 요나는 멀리 떨어진 신이나 막연한 힘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적 기도의 기초가 상호 인격적인 앎의 관계에 있음을 확증합니다.

- **성경 구절:** 요나 2:1, 6
- **해당 단락 제목:** 관계에 기초한 부르짖음과 응답의 확신

지명과 연대표

장소 및 연대표: 물고기 뱃속의 기도

장소 표

지명	설교에서 전한 사건	확인된 현대 위치	성경 구절
니느웨	큰 악이 가득한 큰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이 그 악함보다 더 크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라크 북부 모술 인근	요나 1:2
배 / 밑바닥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며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 깊이 잠들었으나, 위에서는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지중해	요나 1:5
물고기 뱃속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준비하신 어둡고 특별한 환경으로, 요나가 3일 밤낮을 보낸 곳입니다. 영적 재탄생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자궁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중해 깊은 곳	요나 1:17–2:10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끝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세굴라*)으로 선포하시는 음성을 들은 산입니다.	전통적 위치: 시나이반도 남부의 예벨 무사(Jebel Musa)	출애굽기 19:1–6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걸어 도착하여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은 곳으로, 자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김 목사님은 이곳을 시온산과 연결하여 설명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산	창세기 22:2, 14

연대표

제시된 연대	사건	성경 구절
주전 약 2000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3일 밤낮을 걸어 모리아산으로 향함.	창세기 22:4
주전 약 1446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여 3일 길의 광야를 지나 시내산을 향해 나아감.	출애굽기 3:18; 19:1
주전 약 8세기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기도한 후 육지에 토해내어짐.	요나 1:17–2:10
주후 약 30 / 33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사흘 동안의 장사됨,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요나의 표적"을 성취하심.	마태복음 12:39–40

(참고: 연대는 김 목사님이 언급한 성경 본문의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 표준적인 보수주의 성경 연대학에 따른 것입니다.)

가르침 개요

강의 아웃라인: 물고기 뱃속의 기도

본문 구절: 요나 1:17–2:10
핵심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우리의 존재에 귀 기울이시며 반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담대히 부르는 법을 배우도록, 깊은 고난의 자리를 자궁과 같이 주권적으로 예비하십니다.

1단계: 말해지지 않은 것의 아름다움 (요나 1:17–2:1)

- **핵심 진리:**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거룩한 시로 보존하셨으며, 거기에는 쓰여진 글자보다 말해지지 않은 배경, 곧 하나님의 끈질긴 언약적 사랑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 **성경적 통찰:** 밝은 달 아래서 연인 사이에 단순한 긍정의 말만으로도 모든 마음이 통하는 한국 시의 "여백의 미학"처럼, 요나의 기도는 반역한 선지자를 끝까지 쫓아가시는 하나님의 침묵 속 끈질긴 자비로 감싸여 있습니다.
- **관련 시각 자료:** 시각 자료 1 (타이틀 카드: 물고기 뱃속의 기도).

2단계: 주권적으로 준비된 자궁 (요나 1:17)

- **핵심 진리:** 인생의 폭풍과 위기는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는 특별한 환경을 주권적으로 예비하십니다.
- **성경적 통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듯이(요나 4장), 물고기를 "지정"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manah*). 히브리어 원문에서 물고기는 문법적으로 남성형에서 여성형으로 바뀌며, 이는 물에 잠겨 죽는 무덤이 아니라 새롭게 사명을 받은 종을 낳는 어머니의 자궁(*me'im*)의 역할을 함을 보여줍니다.
- **관련 시각 자료:** 시각 자료 2 (핵심 개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3단계: 삼 일 밤낮: 자아의 죽음 (요나 1:17; 2:10)

- **핵심 진리:** 영적 변화는 옛 자아와 자기 의, 완고한 교만의 죽음을 필요로 합니다.
- **성경적 통찰:** 성경에서 "삼 일 밤낮"이라는 모티프는 죽음과 부활의 문턱을 나타냅니다:
- *출애굽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으며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세굴라*, 출 19:5)이라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은 가장 아끼는 보물인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가며, 부활의 생명을 얻기 전에 옛 자아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 *복음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실 모형으로 "요나의 표적"을 지목하십니다(마 12:40).
- **관련 시각 자료:** 시각 자료 3 (연대표 / 예표론: 삼 일 밤낮).

4단계: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음 (요나 2:1–2)

- **핵심 진리:** 성경적 기도는 공허한 의식이나 마술적 조작이 아니라, 인격적인 언약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 **성경적 통찰:**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Yahweh Elohayw*)께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부르짖는 이방 선원들이나 경외감을 느끼면서도 감사할 대상을 알지 못해 허무해하는 무신론자들과 달리, 성도에게는 달려갈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룩한 특권이 있습니다. 아기의 옹알이를 알아듣는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툰 기도 언어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와 정체성에 먼저 반응하십니다.
- **관련 시각 자료:** 시각 자료 4 (핵심 구절 / 핵심 개념: "그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결단과 반응

- 오늘 당신이 처한 고난의 환경을 사형 집행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자궁으로 바라보십시오.
- 자신의 인간적 노력과 교만과 불순종을 예수님의 발앞에 내려놓으십시오.

-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며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담대히 부르짖으십시오.

학습 가이드

스터디 가이드: 물고기 뱃속의 기도

핵심 진리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깊은 고난의 시공간을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우리의 존재에 반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담대히 부르짖는 거룩한 특권을 발견하도록 자궁과 같이 주권적으로 예비하십니다.

핵심 구절

>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 요나 2:1 (개역한글)

배경 설명

1. **문학적 구조와 "여백":** 요나서 2장은 서사적 구조(1:17과 2:10) 안에 자리 잡은 정교한 히브리 시편입니다. 서예나 함축적인 시에서 직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 여백"을 활용하듯, 요나의 시적 기도는 그가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가 그를 굳건히 붙들고 있었다는 말해지지 않은 실재를 부각합니다.
2. **하나님께서 정하심(*Manah*):** 요나 1:17에서 "준비하셨다"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manah*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주권자로 나타나십니다. 큰 물고기를 지정하시고, 이후 4장에서는 주의 종을 교훈하시기 위해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그리고 햇볕을 예비하십니다.
3. **무덤에서 자궁으로:** 원어 성경에서 물고기는 1:17a에서 남성형(*dag gadol*)으로 소개되지만, 1:17b와 2:1에서는 여성형(*dagah*)으로 바뀝니다. 고대 주석가들과 히브리어 학자들은 물고기의 "뱃속"(*me'eh*)이라는 단어가 종종 내장이나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킨다는 점에 주목하며, 물고기가 사형 집행 도구가 아니라 영적 갱신을 위한 인큐베이터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4. **문턱으로서의 삼 일:** 성경 전체에서 "삼 일"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옛 정체성이 죽는 시험의 장을 나타냅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출 19장), 모리아산으로 향한 아브라함의 여정(창 22장), 그리고 땅속에서 보내신 예수님의 사흘(마 12:40)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눔 질문

1. **말씀의 이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익사하게 내버려 두시거나 즉시 육지로 건져내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셨을까요? "준비하셨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무엇을 알려 줍니까?
2. **주제 탐구:** 물고기 뱃속에서의 삼 일 밤낮은 요나에게 어떤 면에서 "자아의 죽음"을 나타냈습니까?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3일간의 광야 여정 및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여정과 어떻게 평행을 이룹니까?
3. **마음 돌아보기:** 김 목사님은 유명 인사(정치 지도자 등)에 대해 아는 것과 진정한 상호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대하며 기도합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믿고 기도합니까? 그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4. **하나님의 돌보심 묵상하기:** 옹알이하는 아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어머니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세련된 신학적 언어를 요구하시는 대신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에 먼저 반응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5. **개인적 적용:** 오늘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환경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형벌이 아닌 "은혜로 준비된 자궁"으로 바라볼 때, 당신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휴대폰용 요약 (WhatsApp)

인생의 깊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준비하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자궁으로 삼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기도는 세련된 행위가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 달려가는 어린아이의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당신 마음의 옹알이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담대히 부르짖으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 2:1, 개역한글)

기도

'요나의 기도와 보혈의 능력' 말씀과 함께 드리는 기도

요나 1:17-2:10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은 온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그 어떤 큰 성읍과 그 악함보다도 더 크신 주님께서는
큰 바람과 폭풍과 큰 물고기를 명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은,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기억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십니다.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던져지고
주님의 파도와 물결이 우리를 덮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실 자리를 미리 예비하십니다.
사랑으로 물고기 뱃속을 새 생명의 모태가 되게 하시고,
구덩이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 올리십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보배로운 소유라 부르시며,
깊은 곳에서 옹알거리듯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피해 달아나고
배 밑창 가장 깊은 곳에 숨어,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기도하기를 거부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헛된 우상을 붙들고,
저희가 누릴 수 있었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주님에 대해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안주하였고,
저희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피하려 애썼으며,
과거의 추한 모습과 옛 기질을 그대로 붙들고 살았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찬양의 외침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요나의 표적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살아 계시기에,
우리와 주님 사이에는 그 어떤 막힌 담도 없으며,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폭풍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예비하신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저희와 저희 교회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어,

종으로 살던 옛 정체성을 벗어 버리고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대상도 부르짖을 대상도 없이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저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주님께 부르짖어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할 산을 향해 사흘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처럼,
저희의 옛사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 죽게 합니다.
마른 땅으로 건짐을 받은 저희가,
서원한 것을 주님께 갚으며
감사의 찬양을 외치며 저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모든 구원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파멸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사랑과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며,
여러분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켜 주시기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1]

---

[1] 시편 103:4, 8, 13-14 말씀을 바탕으로 한 축도입니다.

이 기도문의 바탕이 된 성경 말씀: 요나 1:17-2:10; 시편 103:1-14; 히브리서 4:14-16; 히브리서 10:19-22; 마태복음 12:39-40; 출애굽기 3:18; 출애굽기 19:5; 창세기 22:1-5.

Hoon Kim 목사의 설교와 함께 드리도록 AI의 도움을 받아 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목사님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닙니다. 전체 검토에 앞서 2026년 11월 11일에 먼저 나눕니다.

복습 문제

복습 퀴즈: 물고기 뱃속의 기도

질문

1. **객관식:** 김 목사님이 '여백의 미학'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한국 시는 무엇입니까?

2. A)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
3. B) 김용택 시인의 〈달〉 (*The Moon*)
4. C) 김소월의 〈진달래꽃〉 (*Azaleas*)
5. D) 윤동주의 〈서시〉 (*Prelude*)

1. **주관식:** 요나서 1장 17절과 4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히브리어 동사('지정하다' 또는 '미리 준비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 **객관식:** 김 목사님이 나눈 히브리어 문법적 통찰에 따르면, 요나서 1장 17절 전반부와 1장 17절 후반부/2장 1절 사이에서 물고기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바뀝니까?
2. A) 작은 물고기에서 바다 괴물로
3. B) 단수에서 복수로
4. C) 남성명사(*dag*)에서 여성명사(*dagah*)로
5. D) 과거시제에서 미래시제로

1. **주관식:** 김 목사님에 따르면, 물고기 뱃속은 사형 집행실이 아니라 영적으로 요나에게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1. **객관식:**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3일간의 광야 여정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히브리어 칭호는 무엇입니까?
2. A) *Shalom* (평강)
3. B) *Segullah* (보배로운 소유/백성)
4. C) *Goel* (기업 무를 자)
5. D) *Kadosh* (거룩한 자)

1. **주관식:**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전 모리아산을 향해 며칠 동안 걸어갔습니까?

1. **객관식:** 김 목사님이 지적한, 무신론자들이 피조세계의 위대한 아름다움이나 경외감을 마주할 때 경험하는 비극적인 허무함은 무엇입니까?
2. A) 그것을 직접 보러 갈 경제적 여유가 없다.
3. B) 깊은 감동과 감사를 느끼지만, 감사할 대상인 인격적 창조주가 없다.
4. C) 자연의 과학적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
5. D) 자연재해의 위력을 두려워한다.

1. **주관식:** 요나서 2장 1절에서, 요나의 기도가 언약적이고 관계적인 기초 위에 있음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문구는 무엇입니까?

1. **객관식:** 엄마와 아기의 예화에 따르면, 우리의 말이 서툴고 불완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 A) 성숙한 신학적 표현을 배울 때까지 우리를 무시하신다.
3. B) 성경 구절을 올바르게 인용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신다.
4. C) 어머니가 아기의 옹알이를 알아듣듯이, 우리의 참된 필요를 보시며 우리의 존재 자체에 먼저 반응하신다.
5. D) 우리의 간구를 다시 다듬어 줄 중보 제사장을 요구하신다.

정답

1. **B) 김용택 시인의 〈달〉 (*The Moon*)** *출처:* 1부 ("여백의 시, 물고기 뱃속의 기도")
2. ***Manah* (מָנָה)** *출처:* 2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환경" 및 단어 연구)
3. **C) 남성명사(*dag*)에서 여성명사(*dagah*)로** *출처:* 2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환경")
4. **영적 거듭남과 변화를 위한 어머니의 자궁** *출처:* 2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환경")
5. **B) *Segullah* (보배로운 소유/백성)** *출처:* 3부 ("자아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삼 일 밤낮")
6. **3일(삼 일 밤낮)** *출처:* 3부 ("자아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삼 일 밤낮")
7. **B) 깊은 감동과 감사를 느끼지만, 감사할 대상인 인격적 창조주가 없다** *출처:* 4부 ("관계에 기초한 부르짖음과 응답의 확신")
8.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Yahweh Elohayw*)** *출처:* 4부 ("관계에 기초한 부르짖음과 응답의 확신")
9. **C) 어머니가 아기의 옹알이를 알아듣듯이, 우리의 참된 필요를 보시며 우리의 존재 자체에 먼저 반응하신다** *출처:* 4부 ("관계에 기초한 부르짖음과 응답의 확신")

3분 요약

3분 설교 요약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을 본문으로 한 '물고기 뱃속의 기도'는 N.E.W. Church 김훈 목사님이 전한 말씀입니다. 김 목사님은 "그래 알았어, 그래 그럴게, 나도, 응, 그래"와 같이 단순한 단어로만 이루어진 김용택 시인의 〈달〉이라는 다섯 줄의 시를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환한 달빛 아래 사랑하는 사람과 나눌 때, 이 짧은 몇 마디 말은 그 이면의 여백으로 인해 깊은 사랑과 그리움을 담아냅니다. 마찬가지로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는

히브리 시이며, 문자로 기록된 것보다 그 여백과 배경이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배경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면서 시작됩니다. 원어에서 물고기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는데, 이는 물고기 뱃속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궁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을 준비하십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삼 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삼 일 밤낮은 언제나 옛 자아가 죽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도록 광야 사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향해 사흘 길을 걸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으며 옛 자아의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도의 시공간을 예비하시며, 그곳에서 우리의 이전 죄악과 옛사람이 벗겨지고 새사람을 입게 하십니다. 마침내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합니다. 피조세계를 보며 경외감을 느끼는 무신론자는 감사할 대상이 없지만, 성도는 부르짖을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나는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온전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기가 옹알이할 때 그 필요를 다 아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말이 온전히 형성되기도 전에 우리 존재 자체에 먼저 반응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메시지

한 주간의 WhatsApp 메시지

1일 차

요나 1:17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도 전에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한 특별한 시공간을 예비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자궁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질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멈추어 서서 주님을 만나도록 두신 곳은 어디입니까?

2일 차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광야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보배로운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옛 자아가 벗겨지는 바로 그 3일간의 자리입니다.

질문: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벗겨내 주시기를 구해야 할 옛 습관이나 생각은 무엇입니까?

3일 차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기 위해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은 그 시간은 아브라함의 옛 자아가 죽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옛 자아를 죽음에 넘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도록 내어드립니다.

질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넘겨드리기를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4일 차

요나 2:1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참된 기도는 여호와께서 진정 나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고난이 닥칠 때 달려갈 대상이 있다는 것은 성도에게 너무나 놀라운 특권입니다.

질문: 이번 주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마주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5일 차

요나 2:2

요나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어머니가 옹알이하는 아기를 알아듣듯,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존재 자체에 먼저 반응하십니다.

질문: 오늘 여러분의 참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성경 본문: 『성경전서 개역한글판』(대한성서공회, 1961).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끝난 본문을 바꾸지 않고 인용했습니다.